

안심대출 34조원... 중산층엔 '안심' 저소득층엔 '근심'

■ 주간 증시 포커스

주요 기업실적 발표

유동성 장세 이어질 듯

'트로이카주' 관심율

원금 상환 능력 중산층 혜택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도움 제2금융권·고정금리 대출 저소득층 소외 형평성 논란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을 줬지만 저신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심전환대출이 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만큼 끊임 없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1·2차분 누적 대출 신청액은 3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366조원)의 9.2%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총 한도인 40조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차 판매 당시 수요가 폭증해 추가 공급이 이뤄질 만큼 '열풍'이 불었다.

다만 원금을 함께 갚을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만 2% 중반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소외됐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효과와 범위가 한정적인 상품이라고 선을 긋지 않아 정책의 취지와 다르게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점이 아쉽다"며 "지금 17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빚을 갖고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할 수는 없으며, 단 한 번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묘책은 없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안심전환대출에 힘입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비중 확대'라는 정부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다만 정책 홍보 과정에서 '낮은 금리'만을 부각시키다 보니, 제2금융권 대출이나 원금 상환에 부담을 갖는 대출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오해

가 생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이 정부의 당초 취지였던 '가계부채 구조개선'에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저소득층을 포함한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소득기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규모가 3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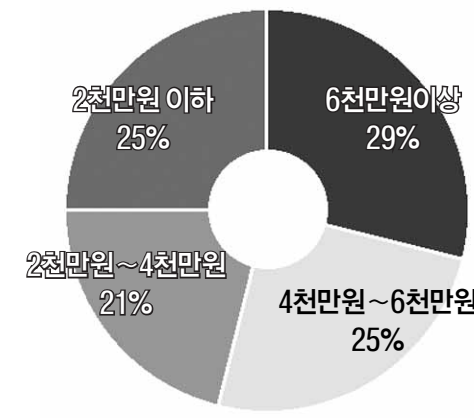
원이라고 하면 평균 20년을 만기로 계산했을 때 연간 1조5000억원의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 리스크나 2019년에 만기가 될 위험도 분산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2%중반대 저금리라는 장점만 보고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대출자들의 경우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

조 연구위원은 "원금 상환 능력이 안 되는데 금리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선풍리 갈아탄 소비자들이 없었으면 한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소득 계층별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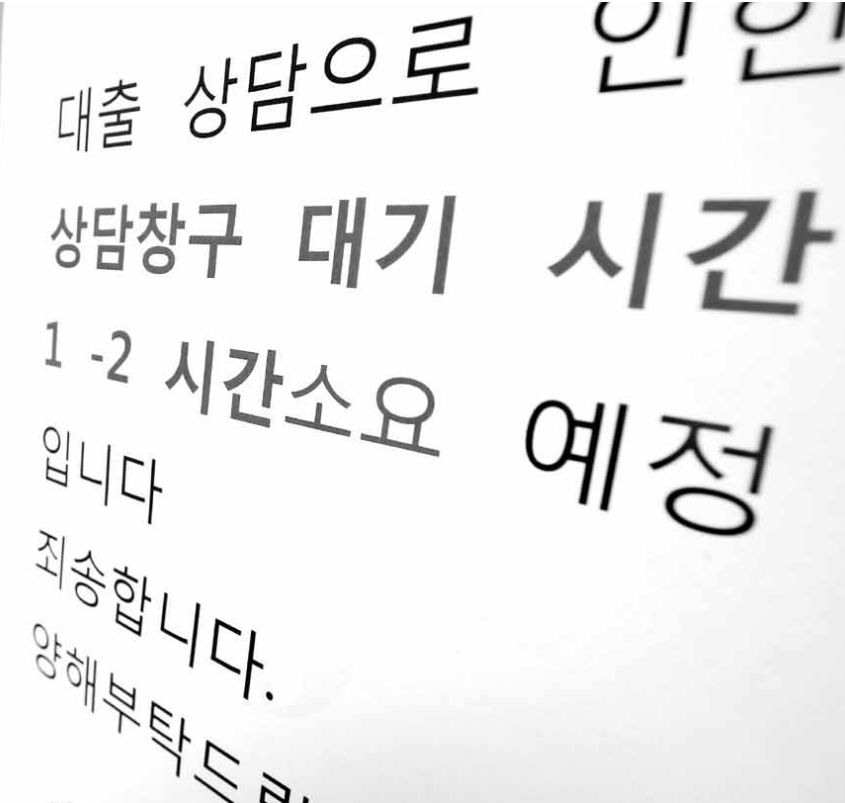
■ 안심전환대출자 연소득(1차분)



(자료:금융위)



지난주 재판매된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물량이 3일간 6조원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사흘간 하루 평균 2조원으로, 지난주 1차 접수 때 하루 평균 신청액인 4조~6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사진은 지난 3일 시중은행 창구 모습.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3월 증가기준으로 연중 최고치(2045.42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660선에 근접하는 등 상승행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반에는 그리스에 대한 우려와 지수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혼조세가 이어졌지만 주 후반 중국인민은행의 추가 경기부양 가능성과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다.

최근 주식시장은 수급여건에 따른 변화를 크게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매매패턴에 따라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 날에는 상승한 뒤 외국인 매도한 날에는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펀드완매 물량 등으로 투신권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연금 등에서 매도 물량을 보완해 주면서 수급 측면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지수가 2050선에 다가서면서 추가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매수감도는 다소 약했지만,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순매수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유로존의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중국에서도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추가 경기부양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글로벌 각국의 확장적 경기부양 기조는 여전히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추고 2.6%의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통해 부동산 및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국내주식시장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기업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특히 오는 7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8일 미국 주요기업인 알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주요기업의 실적발표에 따른 명암이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기업 보다는 미국 주요기업의 실적이 주식시장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강세와 유가하락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상승모멘텀을 약화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주 증시 관련 포인트는 외국인 순매수 여부와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지수 향방이다. 우호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당분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른바 '트로이카주'와 실적개선이 뚜렷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과도한 상승을 보이는 업종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다.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금융위 "안심대출 상품 추가 출시 없다"

"2차 남은 6조 3차 재원 활용 안해"

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저리의 고정금리·분할상환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주 2차 판매에서 약 6조원의 한도가 남았지만 안심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2금융권이나 고정금리 대출자 등을 위한 신상품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일로 2차 안심대출 신청이 완료됐다"면서 "2차 대출을 출시하면서 약속했던 3차 대출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조원으로 설정한 2차 대출 한도 중 일부 물량이 남았지만 3차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15만 건에 14조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약 6조원의 한도가 남은 셈이지만 추가 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금융위가 3차 안심대출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한 것은 1~2차 합쳐 34조원에 달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이 엄청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애초 예정한 4천억원의 추가

출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화 보증배수를 무리하게 늘려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했다.

특히 34조원 이상의 MBS 추가 발행은 채권시장을 왜곡시킬 만한 요인이기도 하다.

은행들에 MBS 물량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요구한 것도 상당한 불만 요인이다.

이 때문에 1~2차 안심대출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2금융권과 고정금리 대출자를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안심대출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들을 다들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기존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연합뉴스

1년이상 사용 안한 계좌 현금인출기 한도 70만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인 경우 현금인출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이 하루 최대 7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제3차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쓰지 않은 계좌에 대해 CD(현금지급기)·ATM기로의 일간 현금인출 한도를 6일부터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고 5일 밝혔다. 장기간 쓰지 않거나 잔액이 적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보이시피상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활용하는 대포통장은 암시장에서 개당 100만원 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송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직접)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서구 벽진동 대지 724㎡ 매 4억9천
- 서구 마록동 대지 701㎡ 10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682㎡ 9.8억(신설도로접)
- 광산구 삼도동 1중주거지 전 6,900㎡ 19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직접)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형
☎ 010-5536-0382

NAVER 검색엔진 대비물리워 늘려보아요

단비플라워

죽아와원3년 근조와원3년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홍질경영시스템엔지니어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660-29